

2025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기
억
하
고
싶
은
길



제주다크투어



(사)제주다크투어는 여행을 통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3 평화기행을 비롯해 사라져 가는 유적지 기록 및 구술 채록, 4·3 교육활동 및 다양한 국내외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사말	4
제주다크투어의 가치와 2025년	5
2025 주요 활동과 성과	6
2025 분야별 활동	8
2025 재정보고	16
2025 후원회원	17
제주다크투어를 가까이 하는 방법	18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닥쳐오는 듯 합니다. 윤석열에 의해 2024년 연말 비상계엄을 맞이한 우리는 지난해 어렵게 그를 탄핵하고, 새정부를 맞이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시험을 통과하고나니 곧 시가 세상을 뒤엎을 것 마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아이들을 비롯한 비무장한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잃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많은 나라에 무기를 팔며 많은 이익을 거두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기 몇 일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4·3과 관련해서는 몇 보 앞으로 나아갔다가도 다시 뒷걸음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4·3 초기 대표적 가해자인 박진경 9연대장과 관련한 일입니다. 2025년 12월,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박진경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안내판에는 박진경 강경진압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에서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승인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안내판 제막식에 극우성향의 시민들이 몰려와 4·3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4·3연구소를 통해 4·3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증언하고, 또 책으로 남기기로 했던 생존자분께서 모든 증언내용을 철회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2월말 국가보훈처는 사실상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직도 계엄세력에 대한 처벌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윤석열을 탄핵했으니 이제 사법체계에서 걸맞게 처벌하겠지라고 믿고 싶었으나,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과 검찰 조직은 우리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다시 4·3과 같은 역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억을 가지고 무관심 경계해야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지치 않도록 제주다크투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2026. 3.
김잔디 제주다크투어 대표



4·3과 제주 역사를 알려드립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덕분에 작가의 최근작인 <작별하지 않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제주다크투어를 통해 소설 속에 나오는 장소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제주다크투어가 발빠르게 '작별하지 않는 다크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학과 만난 4·3 여행은 훨씬 깊고 풍성해졌습니다.

4·3을 기록합니다

4·3기간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수형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재심재판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그간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들과 소감을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공익활동가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서울 다크투어 역사현장 답사를 다녀왔고, 자체 예산으로 오사카 4·3희생자 위령제에 참여했습니다.

제주의 평화와 생태를 지킵니다

제주다크투어를 찾는 분들께 텀블러 사용과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행 과정에서 제주도가 겪고 있는 평화 및 생태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난개발, 제주해군기지, 제2공항 등 제주의 평화와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문제에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 중요합니다.

국경을 넘어 평화를 위한 목소리에 연대합니다

제2공항 저지, 제주 지하수 개발 반대, 강정평화대행진 참여 등 제주도내의 현안에 힘을 보탰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주동자 윤석열 탄핵,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팔레스타인 해방, 이스라엘의 이란공격 규탄 등에 국내외 평화를 위한 활동에 연대했습니다.

2025 주요 활동과 성과

2025년 제주다크투어가 진행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1월

- [평화기행]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외 1팀
- [한반도평화행동]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1.20)
- [제주4·3기념사업위] '행안부의 발굴유해 집단 합시 시도 철회 촉구' 공동성명(1.21)
- [제주4·3국제네트워크] 트럼프 정부의 공식 사과요청 담은 공개서한 발송(1.23)
- 신입 활동가 교육(1.8-23)

2월

- [평화기행]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외 3팀
- 강정 해군기지 내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규탄 집중행동(2.3)
- 제4차 정기총회, 양성주 대표 이임, 김잔디 대표 선임(2.11)
- KBS제주, <탐나는 제주> 생방송 출연(2.25)
- [제주4·3국제네트워크] 대만2·28사건 희생자 추모 성명(2.28)

3월

- [평화기행]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본부 외 1팀
- 윤석열 탄핵 성명 및 제주 집회(3.1-4.4)
- [일일기행] 작별하지 않는 다크투어(3.15, 3.29)
- KBS제주, <탐나는 제주-현장 속으로>, 작별하지 않는 다크투어 방영(3.20)
- '제주도정은 송악산 매입부자를 온전히 보전하라!' 공동성명(3.24)

4월

- [평화기행] 순창교육지원청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 외 4팀
-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온라인 강독모임 진행(3.25-5.1)
-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환영 논평(4.11)
- 방송(KBS '6시 내고향', MBC제주 '제주엔N') 및 인터뷰(서울대 학보, 연세춘추, 오마이뉴스) 그리고 기고(서귀포지) 등을 통해 제주다크투어 소개
- [일일기행] 걸어서 삼도리 다크투어(4.19)
- 오사카 4·3위령제 참여(4.19-21)

5월

- [평화기행] 이우학교 학부모 모임 외 7팀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 불허하라!' 기자회견(5.13)
- [일일기행] 노형동 4·3올레길 걷기투어(5.17)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1대 대선후보별 정책 과제 질의 및 답변 공개(5.26)
- 월간 한국노총 611호, '제주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 기고

6월

- [평화기행] 표선고등학교 외 11팀
- [제주4·3기념사업위] '사과 없이 4·3참배한 김문수 후보 규탄' 성명(6.2)
- 현기영 작가의 <제주도우다> 강독모임 진행(6.2-16)
- 2025 제주4·3 서울 역사탐방 진행(6.11-13)
-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6.20)
- [일일기행] 굴, 습지 그리고 4·3 다크투어(6.21)

7월

- [평화기행] 한림대학교 외 3팀
- [한반도평화행동]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기자회견(7.1)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생명수를 사수하라' 기자회견(7.29)

8월

- [평화기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외 5팀
- 2025년 제주생태관광주간 기행프로그램 진행(8.13-19)

9월

- [평화기행] 늘푸른교실 외 4팀
- 길위의 4·3 도로양: 삼도리 마을 이야기 사업 진행(9.9-12.2)
- [제2공항저지도민회의] 제2공항 갈등해결 진정 이후 경과와 비상도민회의의 입장 기자회견(9.10)
- [제주4·3기념사업위] '제주평화인권헌장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9.12)
- [일일기행] 걸어서 서북청년회 다크투어(9.20)

10월

- [평화기행] 제주YWCA 외 8팀
- [제주4·3기념사업위] '국민의힘은 극우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성명(10.8)
- 팔레스타인 해방, 해초와 구호선단 평화활동가 연대 성명 및 제주 집회(10.12)
- [제주4·3기념사업위] '함병선, 박진경 비석에 올바른 안내판 즉각 설치해야' 성명(10.16)
- 페미니즘 정신분석으로 한강 다시 읽기 강독모임 진행(10.22-11.12)
- 2025 후원회원의 날, <서울 4·3 다크투어> 개최(10.25)

11월

- [평화기행] 오현고등학교 외 5팀
- [일일기행] 작별하지 않는 다크투어(11.15)
- 제주대학교 교양수업 강의, 제주다크투어 활동 소개(11.13)

12월

- 제주대학교 교육용 EBS영상 촬영(12.22)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적극 환영한다' 성명(12.8)
- [제주4·3기념사업위]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즉각 취소하라!' 성명 및 공동건의문 제출(12.10-16)
- 난징 대학살 88주기 제주추모 12주기 추모제 공동주최(12.13)
- [일일기행] <북반친발 이야기> 김영화 그래픽작가와 4·3 산전 길을 걷다(12.20)

2025 제주다크투어 분야별 활동



2025년에는 국내외 총 63개의 개인 및 단체(1,587명)가 제주다크투어가 진행되는 4.3 평화기행에 참여했습니다

전국의 노동조합, 교육기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주4.3을 알고자 제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인 참여자가 172명(2024년 7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속에 등장하는 장소와 가장 유사한 곳을 선정하여 '작별하지 않는 다크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소규모의 참가자를 위한 <월간 기행>뿐 아니라 '제주생태관광주간'에 참여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제주4.3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제주도를 넘어 서울, 일본 오사카의 제주4·3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재일본제주4·3위령제를 봉행합니다. 이에 4월 20일, 직접 오사카 통국사를 찾아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속 제주라고도 불리는 이쿠노 코리아타운, 쓰루하시 상점가 등을 돌며 재일제주인들과 만나 인터뷰도 하고 SNS를 통해 소개드렸습니다. 제주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가 교육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6월에는 제주4·3 서울 역사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서대문형무소, 경찰박물관, 서울 국립헌정기념관 등 4·3과 관련한 곳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현장, 용산다크투어(아랫마을), 민주화운동기념관 등을 답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후원회원의날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OhmyNews 오마이뉴스

"2000년에 법 제정하고 20년 지나 무죄 선고... 너 무원통합니다"

제주4·3 재심재판 병행 무기

25.11.05 14:01 | 최종 업데이트 25.11.26 12:01 | 김민기 기자

2025년 10월 28일(화) 제주지방법원 201회 법정에서 제주4·3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등 59명에 대해 27·29차 직권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오전 10시에 개청한 제27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5재고헌09)에서는 총 16명의 제주 4·3희생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 피고인 중의 변호인단 본정은 변호사는 최홍의권 전술로 판명이 된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4·3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자기 생계에 중사하던 평범한 양민들이었습니다. 4·3 당시 경찰에 의해 연장도 없이 연행돼 재판은 받고 목포형무소 등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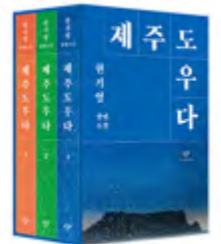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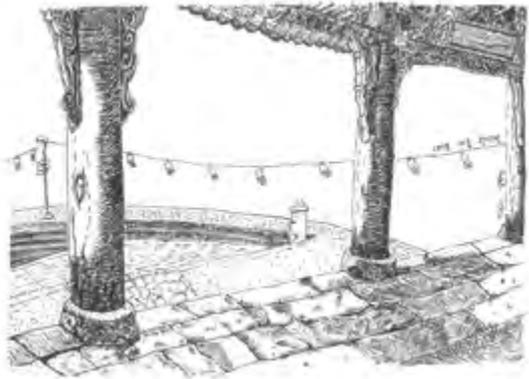


제주4·3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재판 방청 및 후기 작성

2021년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활성화된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일반재판 특별재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여 변호인과 검찰측의 내용, 수형인 희생자 유족의 발언을 기록하고, 그 후기를 홈페이지 게시 및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확인된 생존 수형인 강택심 님의 재심재판이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재심재판의 대부분은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이 대상이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생전에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 또는 2년 이내의 단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고된 형과 무관하게 군인 또는 경찰에게 끌려가 총살되거나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되어 그 억울함과 아픔이 컸습니다. '이제와서 무죄판결이 무슨 소용이냐'며 울부짖던 유족의 증언에서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밖에 제주도내 4·3위령제 참여, 빌레못굴 표지판 제막식 및 위령제, 서귀포시 용흥동 4·3위령비 제막식, 박진경 진실의 비 제막식 등에 참여했고, 충남 천안시 병천면 조병욱 박사 생가 <과오 안내판> 답사 등 다양한 활동을 기록하였습니다.



[길위의 4·3] 삼도리 4·3 이야기, 팬 드로잉 강좌를 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팬드로잉강좌를 진행했습니다. 4·3역사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발포사건의 현장인 관덕정 일대가 삼도리입니다.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4·3역사를 알아가며 유적지를 그림으로 그려 전시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전시한 그림 중 일부는 엽서로 제작하여 4·3을 알리는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덕정 건너편에 있는 '순아커피'에 전시되고 있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그리고 현기영 작가의 「제주도우다」로 강독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4·3을 주제로 2021년에 출간한 장편소설로 광주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한 「소년이 온다」에 이어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해 왔던 강독모임을 온라인(줌)으로 진행하여 함께 책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페미니즘 정신분석이라는 관점을 통해 두 소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기영 작가의 「제주도우다」는 작가가 평생에 걸쳐 써내려간 총 3권의 장편소설입니다. 4·3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천읍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역사를 밀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강독모임을 통해 4·3을 한층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평화를 위한 제주다크투어 연대의 발걸음

국내에서는 4·3관련 역사를 왜곡하려는 극우세력 및 내란정당에 대한 대응 활동, 4·3역사의 가해자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 등 4·3 현안 대응에 연대했습니다. 제주4·3과 닮은 대만2·28사건, 제주 알뜨르비행장을 거쳐 발생한 난징대학살 등 동아시아의 과거사를 함께 추모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윤석열 탄핵, 제주 제2공항 저지, 제주 난개발 이슈, 강정 해군기지 군사활동 확대 저지, 팔레스타인 해방 등과 관련한 연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다크투어와 4·3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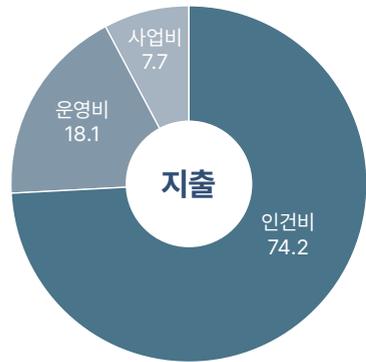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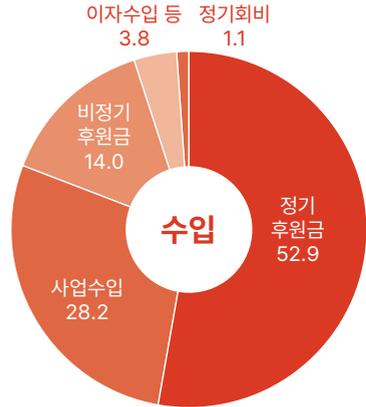
제주도 내 문화, 환경 등 행사에 참여하여 4·3 및 제주다크투어를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제주 4·3을 기억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타투스티커도 붙여드리고, 추억의 뽑기 퀴즈로 간단한 4·3역사를 알렸습니다. 하반기에는 'Don't Forget Jeju 4·3' 로고가 들어간 반소매 티셔츠를 제작하여 후원금 모금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다크투어 제3회 후원회원의 날

많은 회원이 수도권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주를 찾지 않으면 후원회원들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직접 서울로 가서 4·3다크투어를 진행해보자는 취지로 10월 15일 '서울4·3다크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 재정보고

제주다크투어는 후원회원님의 정기후원금(회비)과 비정기후원금을 근간으로 재정을 운영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단위(원)
수입	정기후원금	45,748,795
	비정기후원금	12,122,318
	정기회비	975,000
	사업수입	24,382,863
	이자수입 등	3,317,445
수입 총계		86,546,421
지출	인건비	72,066,429
	사업비	7,449,687
	운영비	17,569,363
지출 총계		97,085,479
당기순이익(손실)		-10,539,058

제주다크투어는 2018년부터 3년간 아름다운재단의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을 받아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2021년부터 자립을 시작한 제주다크투어가 곳곳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2025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활동의 든든한 지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기후원금 후원회원

강갑선, 강경숙, 강경희, 강근혁, 강문희, 강미, 강병민, 강병욱, 강보배, 강성실, 강성호, 강송희, 강순규, 강승희, 강윤희, 강재봉, 강정은, 강호진, 강훈규, 고권일, 고명희, 고미숙, 고애숙, 고의경, 고제량, 고지선, 고한철, 구교승, 구슬기, 권오덕, 권준희, 권지영, 권진덕, 권행백박순, 권현규, 권혁일, 김감사, 김경미, 김경아, 김경아, 김경애, 김경애, 김경희, 김경희, 김나경, 김남훈, 김남희, 김대희, 김덕중, 김동현, 김동환, 김명선, 김미선, 김민선, 김병기, 김병우, 김삼수, 김삼용, 김상길, 김성례, 김성순, 김성한, 김세진, 김세희, 김소정, 김수정, 김승환, 김아래미, 김연주, 김영경, 김영지, 김영환, 김완, 김용결, 김용지, 김유정, 김윤민, 김은경, 김은애,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익조, 김익태, 김인경, 김정숙, 김지민, 김지현, 김지혜, 김진국, 김진석, 김진선, 김찬수, 김창범, 김충용, 김태일, 김태환, 김한솔, 김현미, 김현미, 김현우, 김형완, 김형용, 김효철, 김휘연, 김희순, 김희철, 남찬선, 노승욱, 도백호, 류다솔, 류민희, 류승연, 류영재, 명유성, 명혜정, 문소연, 문유진, 문정순, 문효선, 민경숙, 박건도, 박나리, 박래군, 박문석, 박선미, 박성예, 박수진, 박유라, 박윤희, 박정미, 박정희, 박진, 박진석, 박찬식, 박하은채, 박학민, 박희경, 박희연, 반영관, 방진, 방학진, 배성주, 백가윤, 백연옥, 백영경, 백지혜, 변경재, 변영애, 부성식, 부성진, 서인엽, 서주형, 서채완, 석영근, 성기남, 성영희, 소정미, 송기인, 송방희, 송아영, 송영훈, 송은옥, 송창현, 송창익, 송창훈, 신기철, 신동원, 신윤지, 신은정, 신지은, 신현재, 신혜영, 심삼숙, 심진규, 안은정, 안하나, 양계승, 양민숙, 양선경, 양성주, 양성철, 양소연, 양수경, 양연준, 양윤경, 양인심, 양정미, 양정심, 양훈석, 양희선, 예상희, 오고운, 오동원, 오성희, 오승진, 오승학, 오영선, 오영순, 오은주, 원성준, 유옥규, 유희림, 윤영훈, 윤정은, 이건웅, 이경민, 이기찬, 이길훈, 이도권, 이도현, 이동현, 이미현, 이민정, 이보라, 이사람, 이상돈, 이상언, 이상현, 이상희, 이석원, 이석환, 이선녀, 이선미, 이선영, 이성권, 이송희, 이수현, 이순채, 이슬, 이승건, 이승민, 이여숙, 이영희, 이용석, 이운용, 이원문, 이윤성, 이은경, 이은수, 이일, 이재유, 이정규, 이정섭, 이정숙, 이정화, 이주엽, 이지선, 이지홍, 이태호, 이하나, 이한무, 이현주, 이현주, 이혜자, 임미향, 임아름, 임인자, 장길현, 장동엽, 장명우, 장선미, 장유진, 장은영, 장홍배, 전국사무원대노동조합, 전명숙, 전미라, 전영미, 전은경, 전진수, 정경희, 정규정, 정기중, 정다인, 정다정, 정민규, 정병길, 정성환, 정소영, 정신영, 정연옥, 정예은, 정지연, 정태권, 조경옥, 조민수, 조백기, 조선경, 조수진, 조양일, 조연서, 조영강, 조예진, 조은임, 조정아, 조정희, 좌광일, 주동규, 주세웅, 주수정, 주은선, 주현우, 지오, 진미영, 진영옥, 진용석, 차옥준, 채송아, 채지연, 최선미, 최성혁, 최승남, 최연식, 최원진, 최윤정, 최재혁, 최정진, 최혜란, 하타나카야이, 한계순, 한미일, 한수연, 한정애, 허선영, 허순화, 허은규, 현기영, 현기욱, 현대숙, 현봉열, 현순열, 현준호, 현혜경, 홍성수, 홍성우, 홍영철, 홍일심, 홍창부, 황서영, 황준, 황진상.

비정기후원금 후원회원

강임하, 고길천, 고의경, 고제량, 고한철, 김감사, 김경희, 김남훈, 김다혜(다디잔), 김병우, 김예은, 김잔디, 당시, 매곡고등학교, 문용철, 미국교수연합, 박소해, 박유라, 박하은채, 박희경, 방앰마, 백지원, 부성식, 손성준, 신애경, 심진규, 양성주, 오승진, 윤희정, 이상일, 이선영, 이은혜, 전영미, 전진수, 조수진, 조원영, 좌광일, 최상돈, 최영진, 한장금, 허성안, 허성현, 홍영철, 황서영, 황정혜.

제주다크투어를 더 가까이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힘을 저희는 믿습니다.

제주다크투어와 함께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가는 힘이 되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매달 일정 금액을 CMS 자동이체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접속 > 정기후원 신청 > 기본정보 입력 >
출금정보 입력 > 영수증 정보 입력 > 동의서 사인 > 등록

회원이 늘어나면 4·3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힘이 커집니다.
주변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가입을 권해주세요.



비정기 후원하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255-4708-41 / 예금주 : (사)제주다크투어



물품 후원하기

제주다크투어 사업에 필요한 현물(복사용지, 도서, 문구 등)을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에 제주다크투어에 쓰일 것이 있습니다.

물품 후원 문의 : 사무국 064-805-0043



SNS 친구되기

페이스북 @jejudarktour 인스타그램 @jejudarktours 유튜브 #제주다크투어 검색

SNS에서 제주다크투어의 소식을 받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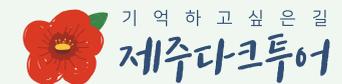
#좋아요 #공유하기는 더 많은 분에게 제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제주다크투어의 한 달 활동, 다크투어 유적지 소개, 행사 안내 내용을 담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제주다크투어의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구독방법 : 홈페이지 하단 > 뉴스레터 구독 정보 입력 / 제출하기



2025 제주다크투어 연간보고서

기획/편집	(사)제주다크투어
제작	(사)제주다크투어
디자인	다디잔
인쇄	세진인쇄
발행일	2026년 3월
발행인	김잔디
발행처	(사)제주다크투어
주소	[631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5, 2층
전화	064 805 0043
후원계좌	농협 301-0255-4708-41 예금주 (사)제주다크투어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사)제주다크투어는 여행을 통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다시는 제주4·3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3 유적지 기행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 기록, 4·3 강좌 개최 및 국내외 연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3184] 제주도 제주시 남성로 15, 2층

Tel. 064 805 0043

Fax. 070 8228 0043

jejudarktours@gmail.com

www.jejudarktours.org

facebook. @jejudarktour

instagram. @jejudarktours

youtube. @제주다크투어